



MISSIONARY NEWS LETTER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2025. 7. 17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GBGM)에서 필리핀으로 파송되어 필리핀 웨슬리 신학대학원 (Wesley Divinity School, Wesleyan University-Philippines)에서 신약성서를 가르치고 있는 이민규 목사입니다.

필리핀 신학교육과 선교에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서 현지 동역자들과 의도치 않게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긴밀한 소통의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경우 생기는 혼란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협력하는 것이 선교 사역에 기본 가치인데, 갈등의 국면이 조성되면 선교사로서 큰 심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학교 공동체 안에서 유발된 갈등을 조정하며 심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문제점들과 선교 과제들을 마주하며 저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고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이며 저의 머무름이 사역의 동역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간략하게 선교지 소식을 전합니다.

1. 논문 및 목회 프로젝트

지난 학기에는 약 2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학생들의 논문과 목회 프로젝트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총 17명의 목회학 석사 과정 학생과 1명의 박사과정의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발표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전임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며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기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어진 과제들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중 저의 지도를 받은 2명의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Cathleen B. Pelayo



캐스린 목사님은 필리핀 원주민 중 하나인 Aeta 부족 출신으로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최초 원주민 출신 졸업생이 됩니다. 캐스린 목사님은 Aeta의 문화와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했지만, 필리핀 정식 고등교육을 받고 Aeta 부족의 복음화와 선교에 헌신하고자 로컬 목사로 지원하였고 이번에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Aeta 부족은 필리핀 루존섬의 외진 산악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여러 네그리토계의 토착민입니다. 이들은 검은 피부, 작은 체구, 곱슬머리 등 조금은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계열의 부족이 필리핀으로 유입되기 이전부터 살던 필리핀 최초의 원주민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영향으로 많은 부분에서 생활 방식과 풍습들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Aeta 부족민들은 여전히 도시와 구별된 지역이나 산속에 바나나 잎이나 대나무를 이용하여 일시적인 거처를 만들어 유목민적 생활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로 유입된 Aeta 족들도 여전히 그들의 고유한 생활 방식과 문화, 언어를 사용하며 원주민 고유의 전통과 유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원주민 선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Aeta부족들만을 위한 교회도 설립하였고,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 빈곤을 개선하고, 기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스린 목사님은 현재 본인이 소속된 연회의 Aeta 부족을 위한 선교 전략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원주민 목회와 선교를 위한 제언'을 논문에 담았습니다. 연회에서 원주민을 위한 선교 프로그램과 전략들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정작 원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실질적 필요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소통의 과정 없이 외부/도시인의 시각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점이 오히려 원주민 성도들을 더 소외되고 고립되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원주민 선교와 목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통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필리핀 Aeta 부족들의 선교와 목회를 담당해 나갈 캐스린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논문제목: Towards a Sustainable Indigenous Ministry: Exploring Aeta Pastor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a Provisional Annual Conference in Tarlac

Elenor S. Malonzo

엘레노 목사님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이주 노동자로 18년 넘게 일하면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2020년 이주 노동자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결심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역 교회 목회자로 파송 되었고 웨슬리 신학대학원에 입학 하였습니다.

이전 선교 편지에서도 간략하게 전해 드렸듯이, 필리핀은 해외로 노동자(OFW - Overseas Filipino Workers)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노동자의 수가 230만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해외로 진출해 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필리핀 전체 GDP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OFW들의 역할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은 간호사, 기계/설비/건축 노동자 등 전문직을 비롯해 가정부나 호텔 청소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노동 강도가 높은 3D업종, 또는 가정부나 허드렛일을 하는 Domestic helper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찾아서, 또는 더 안락한 삶의 공간을 찾기 위해 해외로 이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임금을 확보해 필리핀 내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해외 이주 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많은 상실과 결핍을 감내해야 하는 고달픈 삶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처지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레노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영향을 주는지 고민하며 연구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책이나 설교를 통하여 배워 왔지만,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의 독특한 경험과 고달픈 삶의 애환을 담아낼 수 있는 성령님의 역할을 글로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의 삶은 일반인들의 삶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삶의 경험과 애환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분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더 분명한 방식과 선명한 길로 성도님들을 인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는 엘레노 목사님의 여정을 위해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논문제목: Exploring the Impact of the Holy Spirit on Discipleship Ministry in Filipino Immigrant Community: Focused on the Bible Study Groups in Abu Dhabi

2. 동남아 신학교육 연합회 가입

지난 7월 2-4일, 웨슬리 신학 대학원은 동남아 신학교육 연합회(Association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Southeast Asia)로부터 개설된 학위 과정들에 대한 공식 승인을 받기 위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웨슬리 신학대학원은 필리핀 연합감리교회 소속 신학교들 중 유일하게 필리핀 고등교육부(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로부터 모든 학위 과정을 공식 승인 받은 유일한 학교입니다. 신학교 자체는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필리핀 지방 명문 사립대학인 웨슬리 대학(WU-P)의 대학원 과정으로 소속 되어 모든 학사행정을 관리 받고 있기에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웨슬리 신학대학원이 필리핀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 양성을 넘어서 필리핀 신학교육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남아 지역의 중심 신학기구인 ATESEA에서는 승인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ATESEA에 가입하고 승인 받기 위하여 준비하였지만, 부족한 교수 자원과 열악한 교육설비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전 동일한 심사를 받았지만, 열악한 도서관 환경과 기숙사 및 교육 설비 부족 등 여러가지 실격 사유로 인하여 승인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웨슬리 대학(WU-P)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힘입어 재심사를 받은 것 입니다. 여전히 교수 자원의 부족으로 이번에는 목회학 석사(M.Div)과정만 심사 받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3. 침수 피해 대비 시설물 정비

웨슬리 신학대학원 기숙사는 우기철이 되면 침수로 인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모든 하수물이 배출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 내 최고 저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설립된 이후, 캠퍼스 주변의 도시 제반시설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자연스럽게 높은 지대를 형성하게 되고, 대학 캠퍼스는 지대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서 모든 빗물이 모여드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머무른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무릎 정도 높이로 침수된 경험만 28회에 이를 정도 입니다.

우기철이 되면 침수된 집청소와 진흙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젖은 침수로 인해 집안에 있는 목재 구조물이나 가구들이 부식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심한 곰팡이 냄새로 상당한 불쾌함을 떠안고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여러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며 방법을 찾아 보았지만,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학이 위치한 지대를 1m 정도 높이고 하수구를 다시 개설하는 큰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대대적인 공사로 인해 흙먼지와 함께 지냈지만, 침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침수와 곰팡이로부터 해방되어 웨슬리 신학대학원 학생과 목회자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 머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MISSIONARY NEWS LETTER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Prayer Request

1. 의도치 않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큰 딸 (미국-대학), 둘째 (필리핀-고등학교), 막내 (한국-중학교)
2. 다른 문화권의 신학교를 섬기는 일이기에 조심스럽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3. 필리핀 신학 교육을 위해 정의롭고 실력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4. 웨슬리 신학대학원 대학원장 임명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잘 봉합되기를 기도합니다.
5. 신학대학원을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모든 논의와 결정의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선교 사역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 시간을 잘 활용하고 사역의 분배를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https://advance.umcmmission.org/p-2014-lee-min-kyu.aspx>

UMC 세계선교부 선교사를 후원하는 링크 입니다. Advance # 3022597

선교사 개인 후원계좌: 한국시티은행 (이민규: 451-06521-269-01)